

그 날 -요엘-

요엘 2:28-32, 사도행전 2:16-21

정윤돈 목사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의 평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레마가 되게 하시며, 문제와 고민에 대한 답을 그 속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하였으니,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사 세계 10위 권의 경제대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 또한 올림픽을 통해 국위가 선양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모든 분야에서 빛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론 : 요엘서 개관

(1) 요엘의 활동 시기 : 오늘은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목표를 발견하려고 한다. 요엘은 구약의 문서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구약은 크게 나누면 역사서, 지혜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로 나눌 수 있는데, 선지서 17권은 대전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뉘어진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활동했다는 인물이라는 말이다. 문서 선지자라고 했는데, 구약에 보면 문서를 남긴 선지자와 남기지 않은 선지자가 있다. 대표적인 후자의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다. 많은 활동을 했는데 문서를 남기지 않은 것이다. 요엘 선지자는 문서 선지자 중에서 처음 활동했던 사람이다. 요엘의 활동 시기는 포로 후인가, 포로 전인가 하는 논란이 있는데, 많은 자료는 그가 BC 9세기 경, 포로되기 전 시대의 사람임을 추측하게 하고 있다.

(2) 저자의 이름과 의미 : 요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요엘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요엘 1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전쟁과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잘못을 했지는 안 나온다. 열왕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특히 여기에서는 요엘의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외의 다른 많은 신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알라가 하나님인가?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같은가?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목을 베라, 테러를 해라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다른 하나님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헛갈린다. 옥황상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신인가? 다른 신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던 여호와와 하나님과 혼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은 농사를 짓게 하는 신과 다른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 보니 비가 중요하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중요하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런 비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다보니, 비를 내리는 신, 태양의 신, 농사의 신이라는 바알과, 그 부인인 아세라를 신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이것이 합방을 할 때 비가 내린다고 보았기 때문에, 바알 아세라 신전에는 항상 매춘부가 있었다.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영적 문제를 일으켰던 사상과 문제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었다. 이 신을 가장 강하게 섬겼던 민족이 오프리 왕조인데, 오프리는 아합의 아버지였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기적을 주셨던 것은, 이런 악한 시대에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에 가면 다 가미사마(神様)다. 영어에서도 문자는 달라도 발음은 같다. 천주교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가? 교황 무오설(無誤說)을 말하고, 마리아가 원죄 없음을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천주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전혀 아니다. 교황이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뭘 했냐? 마리아 승천 축일 미사를 지냈다. 그 하나님

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전혀 아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인본주의적인 것, 틀린 것, 교리로 만든 것을 교회로 끌어들이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는 성경을 들고 사탄교회를 만들었다. 동성애자 교회를 만들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냐? 창조원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동성애자는 회개해야 한다. 동성애자가 회개할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동성애를 정당화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자기 이름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다. “종교 혼합을 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은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다. 징계가 오거든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언제까지인가? 말세까지다. 그때까지 회개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들림을 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될 것이다.”

(3) 요엘서 속의 난해구절 이해 : 요엘서 속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 요엘 2:30을 보라. 기적을 베풀다고 해 놓고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게 무엇이겠는가? 전쟁이다. 말세에 아바겟돈,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31절에는,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리라.” 이것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다. 언약을 붙잡으면 축복의 날이 되지만, 언약을 놓치면 포로로 끌려가는 날, 나라가 멸망하는 날, 최후의 심판 날이 된다. 다양한 이런 의미가 있다. 이 31절을 핵전쟁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그 전에 예수님 믿고 휴거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노아의 방주,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재앙이 오기 전에 들어갔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앞으로 7년 대환난, 전후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은 사람은 대환난 전에 휴거될 것을 설명하고 있다. 말세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기이고, 지금은 그 중에서도 말세지말이라고 말한다. 전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이 없었는데, 이제는 메시아니즘(Messianic Jew)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성전 산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피하고 살아남고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에는 다중적인 의미가 있다. 환난, 고난, 어려움이 와도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며,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메시지다. ‘너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말세 때 대환난이 올 때에는, 그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그를 믿고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아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세를 맞는 유대인에게 대한 메시지요,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리하겠는가? 성령충만이 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길 수 있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1. ‘그 날’의 의미

그러면 여호와와 날, 즉 그 날, 그 때, 그 장소에 대한 다중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1) 부정적인 의미의 그 날 : 부정적인 의미의 그 날이다. 절망의 날, 고통의 날, 지옥 가는 날, 멸망의 날, 전쟁의 날이다. 시험에 떨어지는 날이고 직장에서 잘리는 날이고 암에 걸리는 날이다. 중독이 시작되는 날, 도박이 시작되는 날, 이혼하는 날, 부도나는 날이다.

(2) 성회로 모이는 그 날 : 사드를 배지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겠는가? 자유무역협정을 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나라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를 하자는 것

이다. 하나님은 그 날을 선포하라고 하셨다. 집회를 선포하고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하셨다. 욥2:12에,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막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실 것이다. 욥2:15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렘넌트대회로 모이고, 국민대회로 또 모이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이것이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회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것이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욥2:16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모여야 한다. 이게 재앙을 막는 길, 전쟁을 막는 길이다. 다른 데는 다 모이면서 성회에 모이는 것은 시간이 없다고 한다. “어린이와 젖먹이를 모으며.” 이번에 세계렘넌트대회에 보니까 의자를 아예 넓게 비워 놓았더라. 왜 그랬나 했더니 돛자리를 끼는 자리를 꼭 만들어놓았던 것이다. 갓난아이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러니까 불평하고 저러니까 불평하다가 대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교만을 회개하라. 이번에 나는 이 구절에 대한 응답을 세계렘넌트대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신앙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우리 개혁공보 신문사 기자가 대회 전 주 토요일에 결혼했는데, 다음 주 대회에 참여한 것이다. ‘아니, 신혼여행 안 갔느냐’ 했더니 여기가 신혼여행이라고 하더라. 나는 깜짝 놀랐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구나 싶었다. 신랑도 신부도 신혼여행 가지 말고 세계렘넌트대회에 참여할 만큼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내가 신학교 때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가는 사람들. (웃음) 그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물론 그분들이야 돈이 없어서 그랬었던 것이었지만, 여러분은 이제 돈이 있어도 성회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기 바란다. 재앙 막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긍정적인 의미의 그 날 : 그래서 이 날이 축복의 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그 날이 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응답받는 날, 합격하는 날, 빛을 갠 날, 헌당하는 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날, 5천 RUTC가 세워지고 1천만 제자가 세워지는 날이 올 것이다.

(4) 예언적 의미에서의 그 날 : 이 날에는 또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하는 날, 남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고 헬라와 로마에 속국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날이 있다. 또 그 나라가 회복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올 것이다. 지금은 비가 오는 날이다. (웃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왔다. 베드로가 성경을 외우고 있었는데, 마가다락방이 바로 그 장소고, 이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엘이 우리가 받을 응답을 미리 보았구나 하고 깨닫고 당당히 고백한 것이다. 성령이 임하도록,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역사처럼 오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 날이 바로 지금 이 때임을 믿는다.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오늘이 그 날이 될 것이다.

(5)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날 : 그리고 최후의 날이 있다. 이전의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있다. 그 날, 그 때에,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2. 우상숭배의 문제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축복

큰 두 번째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문제와,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1)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문제 : 아세라, 아스다룻은 나무로 만드는 신상이다. 바알은 풍요의 신, 태양의 신이며, 아버지라고 불렸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다. 이스라엘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택했다. 이것이 그들이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욥1:4에 보면, “꺾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욥2:25에는 이것을 큰 군대라고 설명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

기와 느치와 황충과 꺾종이가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이스라엘과 유다가 앗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라는 네 나라에 속국이 되고 다 빼앗겼지 않나. 그런데 회개하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한 것이다. 한 번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메뚜기떼가 날면 100억 마리가 나는데, 수십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다 먹어치워 버린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섬기면 이런 것이 들어와서 집어삼키는 것이다. 무엇이 바알과 아세라인가. 미국이 그것일 수도 있다. 우익이 말하는 것처럼 핵무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그것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될 수 있다. 반공 사상이 그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좌익 사상과 운동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붙잡을 때, 원자폭탄 수천 개를 없애 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2)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축복 :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겠는가? 욥2:32에,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욥3:16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욥3:18에,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와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씻김 골짜기에 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욥3:20에, “유다는 영원하겠고” 대한민국이 영원하겠다 하고 보면 된다.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장사포에서 서울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욥3:21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친히 손보실 것이다. 우리를 축복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란다.

결론 : 천명목표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말세 중 말세, 말세지말(末世之末)인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적 미션인 천명목표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절대목표, 절대사명으로 붙잡아야 한다. 생명 건 헌신, 절대헌신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다.

(1)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무너뜨려야 할 것이다. 곧, 동성애, 무슬림, 물질만능주의, 강대국, 선진국,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 이런 문화가 아니겠는가. 좌파, 우파, 이념, 동서, 남북, 이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바알과 아세라가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란다.

(2)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 그래서 성령충만을 받는 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 성령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뀔 것이다. 속지 말고 절대 우리의 목표를 잊지 마라.

(3) 구체적으로 나의 전도와 선교를 찾아내어 도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소원을 향한 천명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할 믿음과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사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버려 버리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이 되고,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